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안전  
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매년 줄어드는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어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스스로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